

# 노루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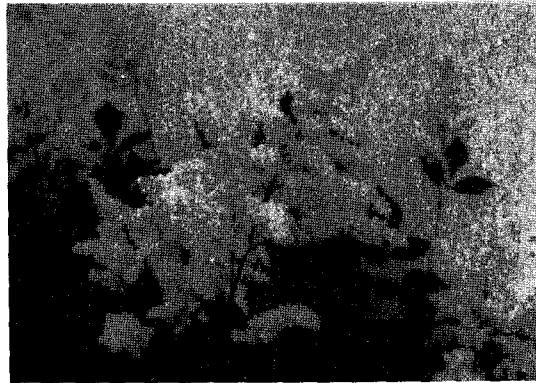


사진1. 활짝핀 노루오줌, 줄기 끝에 담홍색의 꽃이 뭉쳐 원추형을 이루는다.

정연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은 범의귀과에 속하는 내한성 숙근초다. 생약명으로는 소승마, 적승마라고 하며 전국의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생화초다. 절화, 분화, 화단용으로 사용되며 담홍색의 탐스럽고 아름다운 꽂으로 여름을 장식하고 있다.

## 1. 특성

줄기는 곧게 서서 30~70cm 정도 높이로 자란다. 가지는 치지 않고 줄기와 잎자루에 갈색의 털

이 있다.

타원형의 잎이 3개씩 2~3회 갈라져 서로 어긋나게 자리한다. 끝이 뾰족하고 잎가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다.

꽃은 사진 1과 같이 담홍색으로 6~7월에 탐스럽게 핀다. 줄기 끝에 많은 꽃이 뭉쳐 원추형을 이루는데 그 길이가 30cm쯤 된다. 하나의 꽃은 다섯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름은 3mm 안팎이다.

내한성, 내음성, 내습성이 강한 춘식 숙근초이며 생육적온은 15~28°C이다.

## 2. 성분 및 약효

고미물질인 베르게닌(Bergenin)과 탄닌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꽃과 잎, 줄기는 소승마(小升麻)라고 하는데 해열, 진해작용을 한다. 뿌리는 적승마(赤升麻)라하여 진통 및 거풍, 혈액순환을 돋고 어혈(멍든 것)을 없애준다.

## 3. 주요종류 및 특성

유사종은 진퍼리노루오줌(7~8월 개화, 담홍자색, 초장 1m)과 숙은노루오줌(6~7월 개화, 담홍색, 초장 60cm)이 있다.

주요 종류는 표1과 같으며 원예종으로 교배, 육성되어 아스틸베

(Astilbe)라 하여 미국등 외국의 화단이나 식물원에 집단적으로 심어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원예종의 주요품종은 디아만테(고성 백색), 에리카(고성 연분홍색), 에트너(중성 적색), 스파이네르(중성 농적색), 드와프 화이트(왜성 백색) 등이 있다.

## 4. 절화재배

### 가. 노지재배

**재배적지** 성질이 매우 강해서 어느 곳이나 잘 자라지만 거름기가 있는 사양토가 좋다.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나 반그늘에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이 좋다.

**번식** 주로 분주로 번식한다. 3월중·하순에 삽으로 뿌리를 뽑아

표1. 주요 종류 및 특성

종명	자생지	화색	개화기	특성
틴베르기아	한국 일본	적색	6~7월	초장 40~50cm, 화경 및 잎자루의 기부에 붉은색을 띤다.
시넨시스	◆	연분홍	6	초장 50~60cm, 포기전체가 갈색의 털로 덮여 있고 왕노루오줌이라 함.
자포니카	일본	백색	5~6	초장 40~50cm, 군생엽이 2~3회 세열의 작은잎을 가지고 있고 적갈색의 단모가 조생함.
로제아	—	연분홍	5~6	초장 50cm 정도 자포니카×시넨시스 교배종
아렌드시아	—	적·분홍 백색	5~6	시넨시스종에 자포니카 및 틴베르기아를 교배해 육성한 원예종

4~5눈을 기준으로 전정가위나 점도로 잘라서 심는데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시비** 약간 다비를 좋아하므로 10a당 완숙퇴비 3,000kg이상 복비(18동율) 50kg을 넣고 잘 경운 후 심도록 한다. 미숙퇴비를 사용할 때는 백견병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완숙퇴비를 사용토록 한다.

**정식** 두둑은 70cm, 통로 40cm 정도로 하여 3월 하순경에 심는데 새싹이 트기전에 심는 것이 좋다. 재식거리는 그림1과 같이 40×30cm의 2조식으로 심는데 10a당 2,800본이 필요하다. 눈이 3~4cm 밑에 묻히도록 하고 심은 후 충분히 관수한다. 잡초방지를 위하여 3일이내에 제초제 라쏘를 처리하고 사진2와 같이 짚으로 멀칭하여 건조 및 잡초를 방지토록 한다.

노루오줌은 건조에 약하므로 그



사진2. 절화재배 짚 멀칭

림1과 같이 관수시설을 하여 생육을 좋게하고 물주는 노력을 줄이도록 한다.

**기타관리** 건조하지 않도록 봄가을은 4~5일에 1회, 여름은 2~3일에 1회씩 관수토록 하고 배수구도 잘 정비한다.

1년차는 잡초가 발생되어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2년차 이후는 어우러져 잡초가 적으므로 1년차 때 철저히 잡초를 없애도록 한다. 7~8월 고온기에는 잎이 타서 생육이 나빠지게 되므로 30% 차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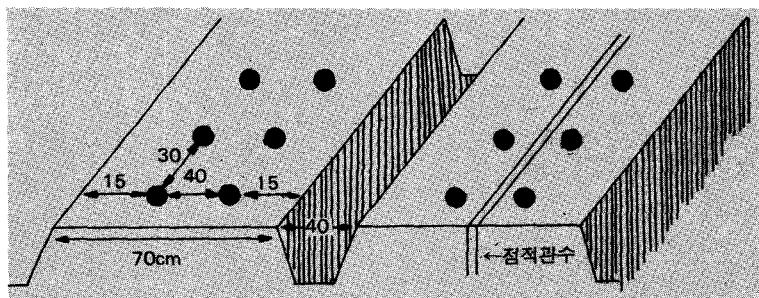


그림1. 노루오줌 정식요령 및 관수시설

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반그늘이나 준고냉지에서 재배하면 유리할 것이다.

2년차 이후는 3월하순 말라진 잎과 줄기를 깨끗이 제거하고 유기질비료 100kg을 살포한 후 두둑흙을 가볍게 굽어주고 고랑흙을 관리기를 이용, 두둑에 복토토록 한다.

잡초가 많으면 그라목손과 라쏘를 혼용하여 살포하며 잡초가 없거나 복토를 많이 했으면 라쏘만 처리한다

**수확 및 출하** 충분히 개화한 후 꽃가위로 잘라서 열탕처리를 하여 흡수시킨후 10분을 1속으로 결속하여 출하한다.

#### 나. 촉성재배

노루오줌 개화기인 6~7월엔 꽃값이 싸므로 촉성재배하면 소득이 높아진다.

그림2와 같은 작형으로 재배하



사진3. 노루오줌 분화

는데 9월에 뿌리채 뽑아 플라스틱 분에 심어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12월초 5°C 저온에 10일정도 처리 후 비닐하우스에 노지재배에 준하여 심은 후 13~16°C로 보온하면 70~80일 후인 2월하순~3월상순에 수확하여 출하할 수 있다.

건조한 하우스 안에는 진딧물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용약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5. 분화재배

노루오줌은 사진 3처럼 꽂대가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지				△●			■■	xx				
촉성			■■					▽.....		□△V		

△ 정식 ● 밟아 ▽ 묘골취 □ 저온처리 xx 차광망 V 가온 ■ 수확

그림2. 노루오줌 재배작형



사진4. 노루오줌 색상별 화단 정식

가늘지만 힘이 있고 분홍색의 꽃은 은은하며 포근하고 텁스러워 분화로서 가치가 크다.

화분 배합토는 부엽, 배양토, 모래, 훈탄을 3:4:2:1의 비율로 잘 배합해서 3월 하순경에 한 화분에 6~7쪽씩 심는다.

화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데 봄가을엔 2~3일에 1회씩, 여름엔 1일 1~2회씩 물을 주도록 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원추리 재배(7·8월호 100쪽)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분갈이는 3~4년에 1번씩 하고 반그늘이 진 서늘한 곳에서 관리도록 한다.

## 6. 화단재배

내음성이 강하므로 나무밑이나 건물의 그늘진 곳에 지피식물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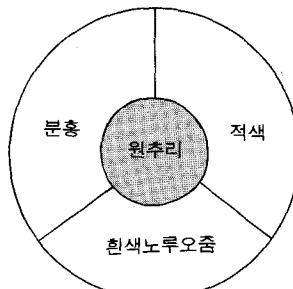


그림3. 노루오줌과 다른 자생화초의 배열

시비 및 관리는 절화재배에 준하고 30cm 간격으로 군식하여 심는 것이 관상가치가 크다. 자생종은 색깔이 분홍색만 있지만 교배종은 백색 및 적색 등도 있으므로 사진 4처럼 색상별로 심거나 그림 3처럼 ① 중앙에 원추리, 주위에 세가지 색상의 노루오줌을 심거나 ② 중앙에 옥잠화나 참나리를 심고 주위에 노루오줌을 단색으로 선정해 심으면 꽃색깔이 다양하고 입체감을 주어서 좋다.

